

폐암을 이겨나가는 76세의 경비원 선생님

59세까지 선생님이로 일을 하다가 퇴임을 한 리쫡학 선생님이 이야기

권대희

중국 시안에서 ## 폐암을 이겨나가는 76세의 경비원 선생님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어른 신들이 많은 약을 복용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중국은 저렴한 약 값과 국가 생활 보조금 그리고 퇴직 연금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지급이 되어져 그나마 한국처럼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.

59세까지 선생님이로 일을 하다가 퇴임을 한 리쫡학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40년간 학교에서 근무를 하던 리 선생님은 퇴임 후 5~6년간은 소일거리를 하다가 집 근처에 유치원이 생기면서 그곳에 경비 비슷하게 재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.

아이들을 좋아하던 선생님이요, 특히 학교경력이 있어서 유치원 경비로 다시 채용이